

배포 일시	2022. 10. 25.(화)		
담당 부서 (총괄)	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유경수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 강경범 (044-201-4255)
			사무관 오상호 (044-201-4254)
			주무관 김홍일 (044-201-424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교통부,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·운영 등 사고 대응(4보)

-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하동수 항공정책실장)는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.

◆ (사고 개요) 10.24일 오전 00:07경(우리나라 시간, 이하 같음) 대한항공 여객기(KAL 631편, 인천 10.23일 18:35경 출발 → 세부, 승무원 11명·탑승객 162명)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

- 어제 대한항공에서는 국토교통부 5명(조사관3, 감독관2), 대한항공 관계자 37명을 탑승한 1차 특별기(17:19 인천 출발)를 필리핀 보홀 섬에 위치한 팡라오공항(21:56 도착)으로 보냈으며, 이후 관계자들은 배편으로 금일 새벽 02:10(한국시간) 세부 섬에 도착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장수습과 사고조사 착수를 위한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대한항공은 어제 1차 특별기와 별도로 세부공항의 일부 이착륙 허용*에 따라 오늘 2차 특별기를 보내, 사고기 체류객 수송 등 희망자를 본국으로 수송할 계획입니다.

* 필리핀 당국 세부공항 이착륙 허용 조건: 주간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활주로 22방향(220°) 이착륙은 가능하며, 04방향(40°)은 이륙만 가능(착륙 불가)

- 사고 항공기의 견인은 사고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 없어, 아직까지 활주로 끝 250미터 지점에서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.
- 필리핀 당국은 우선 안전을 고려하여 사고기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어제 오후 5시까지 항공기에 남아있는 연료를 빼는 작업을 마쳤으며,
- 항공기 내에 있는 약 8톤 가량의 승객 수하물도 내리는 작업을 시도했으나 사고기 자세와 지형 등으로 작업이 원활치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어제 사고 항공기로 인하여 결항 또는 지연된 진에어와 에어부산 항공편에 대한 체류 승객 260여명 수송을 위하여, 항공사 측에서는 특별기 운항을 검토 중에 있으나,
- 금일(10.25) 세부공항 기상은 일시적(09시~21시)으로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가 있어, 운항여부는 비행안전과 공항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항공기 운항 여부 등 운항계획을 지속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